美 하원도 구제금융법안 가결

부시 "조속 서명…위기 확산 막을 것"

미국 하원이 지난 3일(현지시각) 구제금융법 수정안을 가결했다.

상원에서 지난 1일 구제금융법 수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하원도 수정법안을 가결함에 따라 정부는 7천억 달러 규모의 공적자금을 들여 금융시장 안정에 본격 나설 수 있게 됐다.

하원의 표결 결과는 찬성 263표, 반대 171표로 잠정 집계됐다.

앞서 상원에서는 찬성 74표, 반대 25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하원을 통과한 구제금융법안은 조지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정식 발효된다.

이 법안은 재무장관에게 공적자금으로 금융회사들의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어 앞으로 재무부는 역경매 방식을 통해 부실채권을 인수, 금융시장에 유동성 위기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또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유럽·아시아 금융시장이 미 의회의 구제금융법안 처리가 미뤄진 데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해 크게 동요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날 법안이 하원을 최종 통과함에 따라 시장심리도 상당부분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구제금융이 이번 금융위기 사태의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미국 경제가 심각한 경기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하는 목소리도 높아 이번 구제금융법안 통과에 따른 향후 시장 반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하원의 구제금융법 수정안 상정에 앞서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는 가결 정족수 확보를 위해 막판까지 개별 의원들과 접촉, 찬성표를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으며 버락 오바마와 존 매케인 후보 등 각 당 대선주자들도 전화를 통해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였다.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하원에서 구제금융법 수정안이 가결처리된 것을 환영하면서, 법안이 행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조속히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하원의 구제금융법안 통과 직후 CNN방송 등이 생중계하는 가운데 발표한 성명을 통해 "오늘 통과된 법안은 경제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긴요한'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부시 대통령은 "이번주만 해도 일각에서는 연방정부가 도전에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각이 있었으나, 상·하원에 소속된 양당(공화·민주) 의원들의 노고와 행정부, 의회간 협력정신으로 시의적절하게 입법작업이 마무리됐다"고 평가했다.

또 부시 대통령은 "이 법안에 모두 하나가 됨으로써 우리는 월가의 위기가 전국적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낼 수 있게 됐다"면서 "우리는 미국이 세계경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오바마 테러리스트와 어울리고 있다"

페일린, 인신 공격

미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 새라 페일린이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선후보와 과격 테러리스트인 윌리엄 아이어스와의 연계성을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인터넷판이 4일 보도했다.

페일린 후보는 4일 콜로라도주에서 개최된 공화당 모금활동 연설에서 "당신과 내가 보는 것과 달리는 오바마는 미국이 불완전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조국인 미국을 목표물로 삼을 수 있는 테러리스트들과 어울리고 있다"면서 "미국인들은 이에 대해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적은 오바마 후보가 아이어스와의 연계성에 무게를 두지 않았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한 직후에 터져 나왔다.

아이어스는 '시카고 애넌버그 챌린지'라는 단체를 설립했던 인물로, 오바마 후보는 이 단체의 초대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연합뉴스

유럽 각료이사회 의장인 장 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 총리,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 주제 마누엘 바로수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장-클로드 트리셰 유럽 중앙은행 총재(사진 왼쪽부터)가 지난 4일 파리의 엘리제궁에서 국제금융위기에 관한 정상회담후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獨 HRE 은행 350억유로 구제금융 무산

유동성 위기에 처한 독일의 히포리얼 에스테이트(HRE) 은행에 350억유로(미화 약 485억달러)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구제금융 계획이 무산되면서 이미 큰 타격을 입은 유럽 금융시장이 더 깊은 혼란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HRE는 3일(현지시각) "구제금융 계획에 참여했던 민간 금융기관 컨소시엄이 "유동성 라인의 제공을 거부했다"고 발표하고 "이같은 결론을 확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6일 유럽 증시가 개장할 때까지 HRE에 대한 새로운 구제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독일은 물론 유럽, 더 나아가 세계 금융시장에 새로운 긴장이 촉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은 유동성 위기를 겪어온 HRE에 대해 독일 정부가 265억 유로, 민간 금융기관 컨소시엄이 85억유로를 지원하는 등 독일 역사상 최대 규모인 350억달러의 구제금융 지원을 추진해 2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었다.

그러나 이날 독일 주간신문 '벨트 암존탁'은 HRE가 필요로 하는 현금의 규모가 과소평가됐기 때문에 구제방안을 다시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北 김정일 축구경기 관람 보도 왜?

"대내외 업무 복귀 메시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62주년을 맞아 김일성종합대학과 평양철도대학팀간 축구경기를 관람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은둔 51일째인 4일 보도했다.

은둔 51일은 김일성 주석 사망 직후 87일간의 은둔 이래 2번째 장기은둔 기록이다.

TV 화면 등 증빙자료 없어 건재 확인은 미흡

이런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경기 관람 보도는 북한 대내외적으로 굳어지고 있는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을 잠재우고 건재를 과시하는 한편 더 나아가 업무 본격 복귀가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우선 대외적으로,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불거지면서 북한 붕괴론이 급속히 퍼지고 북한의 급변사태 대비까지 거론되는 상황을 벗어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의 건강 이상징후가 포착되면서 남쪽에서는 급변사태 대비 계획과 개념계획 5029의 작전개념화 등 북한 붕괴를 염두에 둔 각종 자극적인 대비론이 무성해졌고, 미국과 중국, 일본 등에서도 북한의 비상사태를 염두에 둔 대비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됐다.

북한이 상대해야 하는 각국 정부가 북한 정세에 대해 이런 인식을 갖게 되면 북한이 이들 정부와 정상적인 협상이나 협의를 하는 게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이날 중앙통신의 보도는 '우리 체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강한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교롭게도 이 보도가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방북 후 교착상태이던 핵검증 문제에서 변화 움직임이 일고 있는 상황과 시점상 일치하는 점도 눈길을 끈다.

또 북한 내부적으로도, 정권 수립 60주년 열병식 행사에 김 위원장이 불참함으로써 북한 주민들 사이에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적잖은 민심동요가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 있다.

북한 당국으로선 이러한 내부 동요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막을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건재, 혹은 건강회복을 확인하기는 여전히 미흡하다.

우선 김 위원장이 경기를 관람했다고 했지만 이 경기가 북한의 TV방송을 통해 중계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관람한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이 병색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일반 관람객에겐 공개되지 않는 귀빈실 같은 곳에 잠시 등장했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지어는 요양중인 병상에서 경기 녹화물을 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김 위원장의 경기관람 보도 후에도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의 공개, 그리고 후속 공개행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을 도리어 굳히는 결과를 빚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북한 당국이 김 위원장의 건재를 과시하는 다른 어떤 물증을 내놓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北 모든 핵시설 시료채취 허용하면 美, 영변 국한 검증 수용 적극 고려"

자유아시아방송 보도

미국은 북한이 핵폐기물 저장소를 비롯해 영변의 모든 핵시설에 대한 시료채취를 허용하면 영변에 국한한 검증도 수용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 "정통한 외교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외교 전문가는 RFA와 인터뷰에서 "현재 미북 검증 협상의 핵심은 북한이 영변내 모든 핵시설에 대한 시료 채취(sampling)를 허용할 수 있을지 여부"라며 "북한이 이에 동의한다면 부시 행정부도 영변에 국한한 검증안의 수용을 적극 고려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에 이미 제시한 검증의정서 초안에서 특히 시료 채취와 관련, 기존의 5MW급 흑연감속로는 물론 구소련이 제공한 연구용 원자로의 알루미늄, 그리고 모든 핵물질과 핵폐기물 등 구체적인 대상을 명시했다고 이 방송은 설명했다.

이 전문가는 "영변 핵시설내 2~3개의 핵폐기물 저장소는 북한이 재처리한 핵물질 증거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반드시 시료채취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북한이 핵폐기물 저장소를 포함 영변 핵시설에서의 시료 채취를 허용할 경우 나머지 검증은 서로가 체면을 살리는 선에서 절충하면 되지만 북한이 시료채취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검증 합의안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1993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영변 핵시설내 핵폐기물 저장시설에 대한 사찰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한 전례가 있다.

과거 미국 정부의 협상단의 일원으로 대북 핵협상에 참여하기도 했던 이 전문가는 북한이 이번에 방북했던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에게 역제의를 했을 가능성이 짙다며 "북한은 영변 내 모든 핵시설에 대한 시료채취를 허용하되 핵폐기물 저장소 등 일부 시설을 예외로 한다든가, 시료 채취를 허용하더라도 시료 분석은 북한 실험실에서 하도록 한다는 식의 역제의를 내놓았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공매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법무사 권숙원
공인중개사 김갑순

(주)옥션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09-23번지 (법원경매 입찰장 앞)

법원경매
친절상담
☎ 062)222-8446
H.010-3666-8446

▶근린시설 (근린주택/상가)

지역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비고
동구	충금동	588/1989	21억1000만	4억8400만	12층/도시형도로변
서구	화정동	1128/2185	16억8700만	11억8100만	신축/4층근린상가/대로변
	화정동	144/314	2억8000만	1억9630만	노후상가/도로변/중흥4동사거리근처
북구	용봉동	495/177	8억8500만	6억1900만	모텔/운전상가/상업지역
	신안동	201/295	2억1800만	879만	주택/4층/근린상가/단지내/사무실
	유동	310/479	2억9000만	1억8600만	12층/1종 일주도로변
	임동	91/165	2억2200만	1억5500만	상가/10세대 도로변
	운암동	456/738	8억2000만	4억3400만	식당/사무실/현재:치킨집
	운암동	484/1324	12억7000만	8억9000만	상가/사무실/원룸/피씨방/단독
	용봉동	430/616	7억800만	4억9600만	노래방/호프/생맥주/단독
동구	충장로2가	197/647	14억7000만	8억2700만	원룸/사무실
곡성	죽곡면	1959/555	2억8200만	1억6400만	일반주유소/단독 도로접
화순	북면월곡리	129736/851	6억5600만	2억9300만	종교시설

▶주택

지역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비고
화순	도암면 천태리 외편	523/162	4680만	2630만	전태마을내
		505/165	1억8300만	1억1400만	전원주택지역
장성	장성읍 안평리	463/112	4000만	2280만	구읍읍마을내
나주	왕곡장산리	582/287	4900만	3400만	구옥매물
	금계동	388/186	1억4700만	1억3000만	예술사진관/단독/주택
동구	계림동	182/73	8300만	5800만	계림2동 재개발지역
서구	쌍촌동	154/156	1억800만	7820만	상무시청, 지하철근접
	화정동	142/166	1억2260만	8580만	상무초교부근
북구	중흥동	150/141	9390만	4200만	주택/지하철
	중흥동	158/173	1억1800만	8300만	북구 충남여중고
	임동	304/183	1억5400만	5500만	무등경기장 인근
	오치동	143/167	1억3400만	9400만	용봉초교인근
광산구	소촌동	191/182	8880만	4970만	송정중앙초등교인근2층

▶아파트

지역	소재지	명칭	층	면적(㎡)	감정가	최저가
광산구	소촌동	서라벌차	12층	79	5300만	3710만
	우산동	사랑 단지	5층	68	4600만	3220만
남구	주월동	현대	7층	82	6200만	4340만
	봉선동	두등2차	4층	102	1억1000만	7700만
	봉선동	금호차	5층	145	2억	1억4000만
	진월동	삼우2차	2층	156	1억8500만	1억1550만
북구	두암동	미라보	4층	82	5500만	3850만
	일곡동	롯데	6층	136	1억9000만	1억3300만
	용봉동	한신	8층	82	5500만	3850만
	매곡동	금호	3층	78	7500만	5250만
서구	화정동	현대	9층	82	7200만	5040만
	금호동	중흥	11층	79	9900만	6510만
	금호동	한국	3층	79	9000만	6300만

▶다가구 (원룸)

지역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비고
서구	쌍촌동	180/334	2억5000만	1억7500만	3층/5가구/금호초교앞
동구	계림동	218/398	3억8000만	2억1000만	3층/15가구/계림동구역내
광산구	송정동	985/631	4억4000만	3억2000만	4층/16가구/월평동인근
북구	두암동	187/348	2억4000만	1억3650만	3층/8가구/두암파크2차인근
	임동	158/281	2억1000만	1억5000만	3층/12가구/일신빌라인근

▶숙박시설 (모텔)

지역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비고
전북	남원시	2816/1579	11억4000만	5억8300만	인월IC인근/지리산호텔
동구	학동	364/857	8억1900만	4억5820만	법무법인
북구	운암동	3430/10928	118억	65억	시외버스터미널인근/뉴코리아스
	신안동	706/2972	22억8000만	12억7000만	1층주차/트윈룸
광산구	월계동	503/1413	15억8000만	5억6700만	롯데마트월계점인근/대한호텔

▶오피스텔

지역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비고
남구	월산동	158.5	2억7000만	1억2000만	풍림오피스텔, 10층
	월산동	39.6	4400만	1900만	풍림오피스텔, 5층
북구	북동	39.6	4000만	1700만	오피스텔, 대인동중앙로, 4층
서구	치평동	69.3	9500만	5300만	상무구청사거리, 10층
	치평동	47.4	3억3000만	2억3100만	로얄타운오피스텔, 3층
	화정동	12.2	5500만	3850만	금호월드, 10층

▶토지

지역	소재지	용도	면적(㎡)	감정가	최저가	비고
나주	이창동	대지	347	8300만	5800만	이창역지개발
	대기동	과수원	10698	2억5000만	1억4380만	관리지역
	노안면	답	1752	1750만	1230만	신일마을인근
	산포면	답	1978	6878만	6878만	개발도로접/농림지역
장성	삼계면	답	1396	2억600만	1억1000만	투자목적
	장성읍	임야	112463	1억5000만	5600만	도시지역
담양	남면	임야	6942	8300만	5800만	전남교육연수원인근
곡성	입면	대지	608	1580만	1100만	농지역/기타도로접
광산구	신창동	전	2073	4억9000만	2억2000만	투자목적
	신창동	전	3621	8억7000만	3억8000만	투자목적
	산월동	답	3269	3억5800만	2억5100만	월드컵보조경기장인근
동구	산수동	대지	225	7430만	5200만	주거지역/계획지구2종
남구	월산동	대지	314	5억4800만	2억4500만	월산시장지역/대로변
북구	용봉동	대지	672	7억4000만	4억1000만	상가,원룸투자목적
	신안동	대지	585	4억7000만	2억8400만	6미터 도로접함
	생용동	답	5451	5억7300만	4억5800만	자연마을인근

▶농가관련시설

지역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비고
곡성	목사동면	1149/165	4400만	1280만	폭장용지, 관리지역
	곡성읍	1451/735	9440만	5300만	도시, 30미터 도로접
화순	도암면	1679/394	6050만	2630만	폭장정지,40미터도로접
	화순읍	5031/1739	2억7000만	9700만	도시, 50미터도로접

▶공장

지역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비고
광산구	안청동	3552/4858	30억	21억5000만	하남공단내, 8번도로
	용동	1980/994	6억3700만	4억4600만	평동공단내
장성	진원면	1144/839	7억4000만	5억1820만	면소재지인근
담양	대전면	9332/2208	11억	8억1900만	한재초교인근/버섯재배사
화순	도곡면	2127/1332	4억	2억2800만	도곡농공단지내, 식품공장
	동면	19885/4105	16억7000만	5억8000만	동면농공단지내
나주	노안면	2007/1464	5억1400만	3억5000만	일반주물인근도로접
곡성	옥과면	3157/1654	7억1000만	3억2000만	옥주초교인근, 버섯재배사

▶다세대(빌라)

지역	소재지	명칭	면적(㎡)	감정가	최저가	비고
서구	금호동	로아스빌	129	2억7500만	1억9400만	1층/인호초교인근
남구	주월동	진로빌라	80	5200만	3500만	2층/역오광장인근
북구	각화동	리빌빌라	75.8	9300만	5200만	2층/금호빌라인근
광산구	우산동	주공2단지	50.72	4600만	3220만	1층/지산초등2단지
	신가동	그린빌	84.6	1억4300만	1억	4층/신가3동인근
동구	학동	미빌빌	71.87	1억1000만	7700만	2층/원룸/세대형인근/버스운행
곡성	옥과면	이야빌	65.04	7300만	5110만	1층/고려대학교인근

▶기타

지역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비고
화순	능주면	989/354	1억3600만	9540만	자은정고,사무실
나주	대기동	5134/435	1억4940만	1억460만	자은학교
곡성	죽곡면	429/40	2420만	1550만	관리지역,자은정고

전북 남원시 대2616/건1579 감정가11억4000만 최저가5억8000만 지리산호텔

쌍촌동 대208/건491 감정가4억2800만 최저가2억3900만 원룸

여수시돌산읍 대2595/건807 감정가8억5000만 최저가6억8630만 베 레스토랑

충장로2가 대197/건647 감정가4억7000만 최저가8억2700만 상가,사무실

월계동 대97/건335 감정가5억7000만 최저가2억5500만 학원

계림동 대218/건396 감정가3억8000만 최저가2억1000만 원룸/계림3구역

기름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쓰는 물온수 보일러 매트!!
한달 전기료 6,000원~
부모사랑효사랑
※국내제작제품

침대용 1500×2100
판매가격 ₩ 22만 ~ 35만

거실용 1850×2400
안방용 1450×2000
각구 지역 대리점 모집
남·녀판매사원모집(차량우대)
물로 순환하는 물온수 매트
물온수 보일러 매트!!
100% A/S보장
전자파로부터 완전해방!
고유가시대 획기적인 난방비 절감!
따뜻한 온돌방느낌 그대로!
전열선이 없어 화재예방!
방안공기도 따뜻! (이동이간편)
◇자매품◇ 향기나는 샤워기 판매
※중국산, 행사제품과는 차원이다릅니다.
※우리고장에서 직접제작하며
• 100% A/S보장은 물론 초보자도 쉽게 설치,가능!
• 아파트, 원룸, 단독주택, 혼자 생활하시는 분 최고인기!
신일종합의료매트
※주문전화※
(오전 07~오후 밤10시까지)
예약받습니다.
TEL. 062)528-7400
H.P. 010-5141-2528
광주시 북구 중흥동 709-1
(현대백화점 건너 제 3주차장 입구)
공장직영 총판판매
◈시외 주문시 택배배달◈
☎광양대리점 011-9441-3021